

# “끊임없는 도전으로 기술혁신 선도하겠다”

## 힘내라 중소기업

(주)첨단랩

유기발광다이오드 활용  
광촉매(TiO2) 기술 개발  
그린 뉴딜 신사업 계획중



장훈 대표

“시작은광 소재·부품·모듈이었지만 기술과 제품을 고도화해 그린 뉴딜에 앞장서는 녹색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지역 소부장 강소기업 (주)첨단랩 장훈 대표(40)는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을 개발해 제조하는 첨단랩은 2018년 설립됐다.

첨단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으로부터 ‘유기전계발광소자(OLED)용 광추출 기판의 제조 방법’의 기술이전을 통해 OLED 광추출 및 광확산 핵심기술인 공기 기공층 산란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 파장 및 UV 영역에서 열적 안정성과 높은 투과율, 내열성을 가진 광확산 부품을 개발한 소·부·장 전문기업이다. 첨단랩은 2020년 12월 대한민국 기업대상 UV-LED 부문 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하는 등 첨단 소재와 부품, 세라믹, 코팅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첨단랩의 광추출 기술 개발로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기존에 일본에 지나치게 의

존하던 광추출 기술은 2018년 첨단랩의 기술 개발로 의존도를 낮췄다.

광 소재·부품·모듈로 시작한 첨단랩은 그린 뉴딜에 앞장서는 녹색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첨단랩은 광촉매(TiO2) 코팅 기술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V 살균 모듈 장치를 사업화했다. 광촉매는 빛 에너지로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반영구적이고 내구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다. 또한 염소나 오존보다 산화력이 높아 모든 유기물질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시킬 수 있어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다. 첨단랩은 자외선(UV) 광원과 개발한 산화티탄 나노 광촉매가 코팅된 나선형 스크류를 기존 해파 필터에 사용해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공기·수질 정화살균장치를 개발했다.

첨단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코팅과 세라믹 소재·부품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풍의 미세화, 고집적화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비 내 부품의 위험성을 플라즈마 용사법을 활용한 세라믹 코팅을 통해 방지했다. 또한 내식 각성 및 수율·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EV



(주)첨단랩은 산화티탄(TiO2) 특수구조체를 적용한 산업용 공기살균 정화탈취 모듈(왼쪽)과 물살균정화탈취장치를 개발했다.

/첨단랩 제공



-PVD 박막 공정을 적용한 코팅 기술을 확보해 상용화 중이다.

전자자동차 시장의 성장으로 고전력 반도체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재 시장의 핵심 이슈는 ‘방열’이다. 첨단랩은 기존 세라믹 소재 대비 고강도, 고방열의 제품 완성 및 상용화에 전념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나노(Nano) 기술을 기반으로 세라믹,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선두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급변하는 시장 변화와 신기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끊임없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다”며 “새로운 기술로 살균 장치를 개발해 공해와 유해물질로부터 인간을 무공해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 지난해 광주 아파트 청약시장 ‘위축’

14개 단지 1,450세대  
평균 경쟁률 17.52대 1  
부동산포털 사랑방 분석

지난해 광주지역 아파트 청약시장이 매우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관심을 끌던 주요 입지에서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 포털 사랑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14곳의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7.52대 1을 기록했다. 전체 공급 가구 수 2,267가구 중 특별공급 물량(817가구)을 제외한 1,450가구 청약에 2만5,401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청약경쟁률은 2020년 31.62대 1, 2019년 41.07대 1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는 분양 물량이 많이 줄고 관심을 끌던 주요 입지에서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분양아파트는 전년(10개 단지·3,634가구)보다 단지 수는 늘었지만, 가구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고 경쟁률도 전년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20년에는 최고 200대 1 등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3곳이나 됐으나 지난해는 첨단 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의 경쟁률 53.75대 1이 최고였다.

힐스테이트 광천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이 30대 1을 넘어서며 지난해 인기 단지로 꼽혔다.

힐스테이트 광천은 152가구 청약 접수에 5,063명이 참여해 33.31대 1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은 275가구 모집에 8,622명이 접수해 31.35대 1로 마감했다.

이밖에 ▲센트럴윤암 모아엘가 트레뷰 18.56대 1 ▲부동산 한국아메리카 더힐 1단지 14.74대 1 ▲광주신정 대광로제비양 13.03대 1 ▲모아미레도 에듀파크 11.17대 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공급된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였던 라벤트힐은 64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 접수 건이 10건에 불과하며 유일하게 미달을 기록했다.

최현웅 사랑방 부동산 팀장은 “지난해 광주 청약시장은 분양가는 오르고, 전매제한 규제로 투자수요는 줄면서 분양단지 수와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연수 기자

## 산인공광주지역본부 허서혁 본부장 취임



허서혁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신임 본부장에 허서혁 본부장(59)이 1월 1일자로 취임했다.

허서혁 본부장은 “공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현장중심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허 본부장은 목포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소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을 역임했다. /김혜린 기자

## 광주조달청, 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표창

광주지방조달청은 구랍 30일 ‘2021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무안군(군수 김산)과 화순군(군수 구충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이재명)를 방문해 트로피와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장을 전수했다.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은 조달청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 조달사업 이용실적과 전년 대비 실적 신장률, 나라장터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선정되며, 2021년에는 무안군과 화순군,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됐다.

조달청은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무안군 세무회계과 장희주 주무관과 화순군 재무과 김정식 주무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강윤진 실무관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이연수 기자

로또 6/45(996회)	
당첨번호	6, 11, 15, 24, 32, 39 보너스 28
등위	당첨금액
1등	1,491,185,771원
2등	52,018,109원
3등	1,350,305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720+(87회)		
등위	당첨번호	
1등	4조	740942
2등	각조	740942
3등	각조	40942
4등	각조	0942
5등	각조	942
6등	각조	42
7등	각조	2
보너스	각조	511955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골드클래스(주)**